

광양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본격 추진한다

봉강면 하조마을·옥룡면 죽림마을 설명회...주민 의견 수렴

“주민들 생활·위생·안전 개선 및 삶의 질 크게 향상 될 것”

광양시는 최근 2일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봉강면 하조마을, 옥룡면 죽림마을 2개 지구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용역 추진에 들어갔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하여 생활·위생·안전 등 긴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등 주택 정비와 함께 주거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내에서 가장 먼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특히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 여건에 적합한 설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민들의 생활과 위생, 안전 등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삶의 질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16년부터 4년간 16억 원을 투자하여 광양읍 무선마을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완료했으며, 광양읍과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대암면, 광영동 등 총 8개 지구에 2024년까지 사업비 563억 원을 투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자에 보상금 최대 20억원 지급기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공포...지급 근거 마련

순천시는 16일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 근절시스템 구축을 위해



5·18 구 묘역 찾은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 묘역)을 찾아 참배하며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부패신고의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 예산의 부정편취와 집행 등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금 부과·환수가 이루어지고 직접적으로 시 재정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 보상금 2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부패행위 신고로 순천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종료 또는 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거나 재정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특히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예방과 구제절차도 이번 조례에 구체적으로 포함됐으며 내부자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표창·인사상 가점 부여 등을 부여하도록 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정렬한 조직은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원리에 따른 자정기능이 작동되고 촘촘한 반부패 그물망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진도군, 특별교부세 20억 확보

재난안전 등 지역사업 탄력

완도군도 16억원 확보

진도군과 완도군이 중앙정부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각각 특별교부세 20억원과 16억원을 확보해 재난안전 분야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이 기대된다.

16일 진도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진도군에서 건의한 지역 현안사업과 재난안전 분야 등 총 2개 사업에 대해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2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조도면 옥도 연도교 신규 개설(15억원) 등 지역 현안사업과 도리산 전망대와 세방낙조 데크 보수·보강 사업 등 재난안전 분야이다.

진도군 조도면 상조도 바로 옆에 위치한 옥도는 상조도와 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교량이 없어 주민들이 의료시설 이용 및 생필품 구입시 선박을 이용해 이동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었다.

완도군도 행정안전부로부터 하반기 특별교부세 16억 원을 확보하면서 각종 현안 사업 해결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역 현

안과 사책, 재난안전 수요로 나눠 교부하는 교부세의 일종이다.

이번 하반기에 교부받은 사업비는 ▶군 단위 LPG 배관망 구축 6억 원 ▶보길 다목적 로드선착장 조성 6억 원 ▶노화읍 포전리 호안 정비 4억 원 등 총 16억 원이다.

군 단위 LPG배관망 구축 사업은 세대별 안전계량기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가스처럼 가스 떨어질 걱정이 없으며, 기존 LPG용기와 등유 대비 30~50% 저렴한 가격으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보길 다목적 로드선착장 조성 사업은 고품화로 노동력이 부족한 여촌계에 양식 기자재 및 수산물을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업인 재산 보호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화읍 포전리 호안 정비는 호안도로 단절로 4.0km를 우회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그동안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특별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하고자 행정안전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진도=조상용 · 완도=김광수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 슬로건입니다.